

“자동차 할부, 다이렉트 2.5% 저렴”

전체 평균 13.7% · 다이렉트 상품 11.2%... 여신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에서 'D' 확인

캐피탈사 할부금융이나 오토론(대출)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운전자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제휴점이 제시한 대출금리가 이익적인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운전자의 만기 36개월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상위 10곳)는 15.9~21.9%로 6.0%포인트 차이가 났다.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보려면 여신금융협회 공시실(<https://gongsi.arefa.or.kr>)에 접속해 상품공시를 클릭하고 (할부)자동차금융상품을 선택한 후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다이렉트 상품은 자동차 대리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여정사가 소비자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 판매해 중개수수료를 줄였다. 현재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상품(13.7%)보다 2.5%포인트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에서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것이 다이렉트 상품이다. 특히 중고차 구입 시에는 제휴점이 대출증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대출 철회도 가능하다. 다음 달 19일부터 개인인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동일 금융회사당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해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상호저당감독국 최성배 팀장은 “다이렉트가 아닌 일반 자동차 할부금융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의 설명이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자동차 2대 이상 보유자 보험료 오른다

금감원, 부과체계 개선 착수 “두번째 차량 손해율 10%p 높아”
과실 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도 추진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에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의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르면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해도 가입자가 동일하다면 똑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첫 번째 차량의 보험료를 내면서 무사고 할인을 받는다던 두 번째 차를 등록할 때도 무사고 할인을 그대로 적용받는 식이다. 업계는 두 번째 차량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높는데도 같은 할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두 번째 차량의 손해율이 첫 번째 차량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

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205만 명 중 220만 명(18.3%)이 차량을 2대 이상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대 이상 보유자는 2013년 186만 명, 2014년 200만 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과실 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도 추진 중이다. 자동차 사고 때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를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보험료보다 더 많이 할증하는 식이다. 현재는 사고 건당 보험료 할증을 메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률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공청회 이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신형그랜저’ 나왔다... ‘최고 완성도’ 추구

가격 2620만~3870만원...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3주만에 2만7000여대 사전계약...역대 최대 기록
지능형 안전기술 브랜드 ‘현대 스마트 센스’ 첫 적용

현대자동차의 하반기 최고 야심작 ‘신형 그랜저’가 공식 출시됐다. 현대자동차는 22일 경기도 김포 김포항공산업단지에서 ‘신형 그랜저’의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신형 그랜저가 ‘시대를 앞서가는 프리미엄 세단’으로 거듭 났으며 ‘최고의 완성도’라는 개발 철학 아래 ▲디자인 고급화 ▲과외 풀한 동력성능 ▲균형잡힌 주행감 ▲등급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능동 안전사양 등을 이뤘다고 밝혔다. 신형 그랜저는 대형 캐스캐이딩 그릴, 독창적인 헤드램프와 캐리커 라인, 기존 그랜저의 헤리티지를 물려받은 리어램프를 적용하고 인체 공학적 실내 설계를 통해 감성품질을 극대화하는 등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외관은 전장 4930mm, 전폭 1865mm, 전고 1470mm, 축거 2845mm의 크기를 갖췄다. 기존 모델보다 전장과 전폭이 각각 10mm, 5mm 늘어 당당한 외관 이미지를 연출했다.

실내는 수평형의 레이아웃과 넓은 공간감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 중심의 품격 있는 공간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가솔린 3.0 모델과 디젤 2.2 모델에는 전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파워트레인 성능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력 모델인 가솔린 2.4 모델은 6단 변속기 탑재로 최고출력 190마력(ps), 최대토크 24.6kgf·m의 동력 성능을 확보했고, 복합연비는 11.2km/l (17인치 타이어)를 달성했다. 고강성 차체구조 구현으로 차체 평균강도를 기존 대비 34% 끌어올리고, 차체구조간 결합력 강화를 위한 구조용 접착제를 9.8배 확대 적용하는 등 차량 안전성도 극대화했다. 신형 그랜저는 지능형 안전기술 브랜드 ‘현대 스마트 센스(Hyundai Smart Sense)’를 최초로 적용했다. 현대 스마트 센스를 통해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 ▲부주의 운전경보 시스템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을 갖췄다. 첨단 신기술도 대거 적용했다. ‘고성능 에어컨 필터’와 ‘속도가 변형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을 적용했다. 특히 미러링크 전용 어플리케이션 ‘맵피오토(mappyAUTO)’를 신형 그랜저에 최초 적용하며, 무료로 제공한다. 신형 그랜저는 가솔린 2.4 모델의 경우 모던(3055만원)·프리미엄(3175만원)·프리미엄 스페셜(3375만원)으로 운영된다. 가솔린 3.0 모델은 익스클루시브(3550만원)·익스클루시브 스페셜(3870만원), 디젤 2.2 모델은 모던(3355만원)·프리미엄(3475만원)·프리미엄 스페셜(3675만원), LPI 3.0 모델은 모던 베이직(2620만원)·모던(2850만원)·익스클루시브(3295만원) 트림으로 각각 운영된다. 특히 신형 그랜저는 내년 상반기 중 가솔린 3.3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을 더해 총 6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형 그랜저는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영업일 기준 14일) 2만7000여대의 계약대수를 기록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의 하반기 최고 야심작 ‘신형 그랜저’가 공식 출시됐다.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로 택시비 선물하세요”

택시비를 티머니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업무용 택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티머니페이(TimoneyPay)’에 택시비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택시비 선물하기 기능은 판촉용 또

는 답례용으로 쓰일 수 있다. 티머니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물하기’ 메뉴에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지역 콜택시 사업자인 나비콜, K-taxi, 국민캡, 엔콜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뉴시스

벤츠, E클래스 엔트리 모델 ‘E200 아방가르드’ 출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10세대 프리미엄 세단 E클래스의 엔트리 모델인 ‘더뉴 E200 아방가르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모델은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가 탑재돼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30.6kg·m(1200~4000rpm)을 자랑한다. 복합연비는 11.1km/l이다. 주행모드 선택에 따라 엔진, 트랜스미션, 스티어링, 공조장치 등을 제어하는 주행 프로그램인 ‘다이내믹 셀렉트’는 총 5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더뉴 E200 아방가르드에는 나과 가속으로 마감된 스티어링 휠 양쪽의 터치 컨트롤을 통해 모든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터치 컨트롤 스티어링 휠 버튼과 자동 주차 기능인 파킹 파일럿이 제공된다. 또 전면 유리에는 내비게이션과 제한 속도 등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가 적용됐다. 풀LED 기술이 적용된 엠비언트



라이트는 취향에 따라 64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안전사양으로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차량들을 파악하여 경고하는 사각지대 어시스트가 들어갔다. 앞 차량과의 간격이 너무 가깝거나 장애물 혹은 보행자를 레이더 시스템이 인식하면 계기판에 시각적인 경고와 함께 경보음을 낸 후 자율 부분 제동을 실시하는 한층 더 진보한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시스템도 지원한다. 한편 더뉴 E200 아방가르드의 가격은 6090만원에 책정됐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